

“이 사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발견된 증거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진범의 유죄를 이끌어 나가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반면 혐의를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 살인범이 심어놓은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최교수는 이렇게 말하면서 안달씨, 구두철씨, 서필수씨, 김애리씨 그리고 수갑을 찬 오영광씨를 고루 쳐다보았다.

“이 증거는 순수한 것인가? 또는 주의를 일부러 딴 데 돌리기 위한 것이었는가?” 최교수의 말은 이어졌다.

극작가 구두철씨는 그자리서 체포되어 끌려나갔다

“여기 계신 서필수씨는 공격을 받고 의상실에 간헐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바로 얼마 전에 살인범이 입었던 옷을 아직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똑같은 옷이 쉽게 볼 수 있는 출구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서필수씨로서는 혐의를 돌리는데 좋은 구실을 제공했습니다.”

최교수는 머리를 내저으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구두철씨가 발견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쇠는 문밖의 자물쇠안 이 아니라 문바깥쪽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필수씨가 바닥에 열쇠를 남겨둔 뒤 두번째 열쇠를 사용하여 스스로 가둬둘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구두철씨가 매우 현명하게 지적인 것처럼 만약에 열쇠가 바깥쪽 자물쇠속에 꽂혀 있었다면 스스로 가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죄가 없고 이런 현명한 오도(誤導)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분은 또 장금지씨의 죽음으로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죽고 나면 구두철씨, 당신은 자기의 재산을 고스란히 지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무슨 증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구두철씨는 항의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증거는 바로 당신 셔츠 밑에 입고 있소.” 최교수의 말은 단호했다.

“당신이었구먼! 당신이 장금지씨를 죽였군!” 서필수씨는 소리를 질렀다. 마치 누가 말리기 전에 격분한 서필수씨는 비호같이 달려 나가 구두철씨의 셔츠를 움켜잡고 와락 당겼다. 셔츠가 찢기우면서 그 밑에 까만 스웨터셔츠가 나타났다.

“경찰이 당신 바지 밑에서 까만 타이즈를 찾아낼 것이요.” 최교수는 다시 말을 이었다. “구두철씨, 당신은 마치 서필수씨가 벗어 던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른 한벌의 옷을 눈에 잘 띄이는 곳에 박아 넣었던 것이요, 그리고 무대에서 당신 부인을 교살할 때 두번째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요.”

구두철씨는 그자리에서 체포되어 끌려나갔다. 1년 뒤 그는 재판에서 살인죄를 선고 받았다. 57